



103위 한국순교성인화
해회동 성당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쏘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집회서 27,30-28,7

화답송



(후렴)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 들 환호하며 거두리 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14,7-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 | 마태오 18,21-35

성가 | 입당성가 [287]

예물준비 [215]

영 성 체 [177]

파견성가 [285]

미 사 봉 헌

연미사

김희철 요셉

김재윤 요셉

박창득 어거스틴 신부님

배재철 안토니오

봉헌

김승애 클라라

김태경 사도요한

문홍빈

배옥희 소피아

생미사

김은성 베드로

서하연 프란치스코

정장근

손영소 스테파노 건강회복

손영소 스테파노, 손명희 엘리자벳 부부

이루리, 박창현 결혼 축하

이경자 율리안나 가정

황경숙 수산나 건강

윤숙자 루시아 건강

강혜숙 바울라 건강

정원유 정혜엘리사벳, 정이재 효주아녜스

이로잔 캐더린 건강

봉헌

익명

익명

김영빈 루시아

김승애 글라라

익명

성모회

김효진 율리안나

김기례 레지나

김기례 레지나

김기례 레지나

박정숙 엘리사벳

이안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흠/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한가위 야외 행사(9/24)

출발 : 08:30 Broadway 31st 뉴튼수도원으로 출발
차내: 긴 연도 바치기
미사: 11시, 미사후 추모의식과 짧은 연도 바치기
점심: 12:30
레크: 13:30(각단체별 몸으로 말해요, 줄다리기, 풍물, 전국노래자랑)
출발: 16:30 맨하탄으로 출발

한가위 연미사 신청: 9/17까지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담당
뉴튼 수도원행 버스티켓 판매: \$ 15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의 교우분들이 함께 한가위 미사를 봉헌하고,
즐거운 게임을 즐기시는 자리입니다.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8(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우분 한명이 예비신자 한 명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한다.”
신청: 사무실 347.834.5784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주고 가신 마음

신뢰의 믿음
텅 빈 정의가 아닌
꼭 찬 희생

이 땅의 순교자들이여.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쁨
을 전하고,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신자분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단기 출석교육’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교리’ 가능합니다.

▶풍물패 ‘신명’ 단원 모집

머나먼 타지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명나게 풍물하실분을 찾습니다.
모임: 매월 둘째, 넷째 주일 2pm-4pm
조건: 함께 신~명나게 풍물 하실분
소속: 선교홍보분과, 연락처: 한안나 917-940-2977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 교사로 봉사하실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김가롤로 신부님

▶미사지향예물 접수 안내

미사지향예물을 신청하시는 교우분들은 2023년 연초부터
실행하고 있는 다음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신청하
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일미사후
친교실 또는 사무실. 원하는 미사 신청일 한 주전 주일까지 신청가능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024년 성지 순례단 모집
"약속의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모세구리뱀 느보산, 와디럼광야체험, 사해, 베들레헴, 주님성탄성당, 유다광야, 꿈란공동체, 예리코유혹의산, 나자렛, 주님탄생예고성당, 갈릴레아, 베드로생가, 겐세 마니, 거룩한 무덤대성당, 승천성당 등. 인솔: 신부님, 수녀님 경비: \$3,700 예약금: \$500 문의박알버트 646-201-0175 신청순 30명 9/30까지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9/17	배수아 마들렌소피에라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유정욱 유스티나	김승현마리아 양지수클라라
9/24	백이백 아오스딩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신부, 수녀	한서희데레사 최예준사도요한

주일의 말씀

존재의 이유를 묻게 하는 분

| 여영환 오도 신부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왜 순교자를 본받자 하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면 발길이 저절로 한티의 순교자 묘역으로 옮겨지곤 합니다. 돌더미 속에도 무덤이 있고 비탈진 응달에도 무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37기의 묘를 따라 순례길을 걷다 보면 골치 아팠던 일과 생각들이 조금씩 내려집니다. 무덤가에 소복이 피어난 구절초와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흩어진 옹기와 사기 파편들은 시간의 수레바퀴를 박해의 현장 속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대부분 이름도 성도 알 수 없지만 한티의 하늘과 땅은 여전히 그때 그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니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만 명이 넘는 순교자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기에 교회는 순교를 최고의 증거로 여깁니다. 순교자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분들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마음에 거듭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를 버리기는 어렵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기는 더 고통스러울 때, 앞서 이 길을 가신 순교자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만여 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팔천여 명은 주님 말고는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나만을 탐하는 분들을 통해 매년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내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보고 듣고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한티의 순교자들도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순교하신지 이미 백오십 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이 사셨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을 생각하면 흐트러진 삶이 다시 추슬러지니까요.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되문도록 해주니까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가엾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